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전치사 이미지 학습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 전치사 about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고 덕 은

2022년 8월

전치사 이미지 학습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 전치사 about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 용 준

고 덕 은

이 논문을 영어영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고덕은의 영어영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윤 용 준



위 원

김 지 연



위 원

양 용 준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A Study 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eposition Image Learning on Students

- Focusing on the Preposition *about* -

Koh, Deok-Eu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August 2022.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가설 설정	3
II. 선행 연구	5
III. 전치사의 기본적 용법과 about의 의미 분석	10
3.1 전치사의 기본적인 용법	10
3.1.1 전치사	10
3.1.2 전치사적 부사	10
3.2 전치사 about의 의미 분석	11
3.2.1 장소	13
3.2.2 수치	16
3.2.3 추상적 속성	18
3.2.4 행동 및 과정	22
3.2.5 부사적 용법	25
IV. 심층 면담 및 논의	29
4.1 심층 면담 대상 및 절차	29
4.1.1 심층 면담 대상	29
4.1.2 심층 면담 질문	29
4.1.3 심층면담 방법 및 절차	30
4.2 심층면담 결과	30
4.2.1 질문유형 ①에 대한 결과	30
4.2.2 질문유형 ②에 대한 결과	31
4.2.3 질문유형 ③에 대한 결과	31
4.2.4 질문유형 ④에 대한 결과	32

4.2.5 질문유형 ⑤에 대한 결과	33
4.3 논의	34
V. 실험 및 결과 분석	37
5.1 실험 방법	37
5.1.1 실험 대상	37
5.1.2 실험 문장	37
5.1.3 실험 절차	37
5.1.4 feedback 방식	39
5.2 1등급 집단 실험 결과	40
5.2.1 분석	40
5.2.2 결과 및 논의	41
5.3 2등급 집단 실험 결과	46
5.3.1 분석	46
5.3.2 결과 및 논의	46
5.4 3등급 집단 실험 결과	51
5.4.1 분석	51
5.4.2 결과 및 논의	51
VI. 결론 및 제언	57
6.1 결론	57
6.2 제언	58
참고문헌	62
부 록	64
ABSTRACT	67

<표목차>

<표 1> ‘about’의 의미 질문에 대한 응답자 수	30
<표 2> 영어 수업 시간에 전치사를 따로 학습한 응답자 수	31
<표 3> 전치사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자 수	32
<표 4> 전치사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자 수	33
<표 5> ‘about’에 관해 알고 있는 구동사 응답결과(1등급)	33
<표 6> ‘about’에 관해 알고 있는 구동사 응답결과(2등급)	34
<표 7> ‘about’에 관해 알고 있는 구동사 응답결과(3등급)	34
<표 8> 1등급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정답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41
<표 9> 1등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about 속성에 대한 정답률	45
<표 10> 2등급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정답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47
<표 11> 2등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about 속성에 대한 정답률	50
<표 12> 3등급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정답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52
<표 13> 3등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about 속성에 대한 정답률	56

<그림목차>

<그림 1>	11
<그림 2>	12
<그림 3>	14
<그림 4>	15
<그림 5>	16
<그림 6>	17
<그림 7>	20
<그림 8>	21
<그림 9>	23

<그림 10>	24
<그림 11>	25
<그림 12>	25
<그림 13>	26
<그림 14>	27
<그림 15> 실험 절차	38
<그림 16> 1등급 집단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정답률	42
<그림 17> 2등급 집단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정답률	47
<그림 18> 3등급 집단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정답률	52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한국 학생들은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즉, 중학교 이후로는 거의 읽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영어 문법을 배운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명사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고, 특히 전치사가 들어있는 명사구에 대한 개념의 부재가 주요한 이유로 생각되었다.

Brook(1958)에 따르면 전치사가 나타내는 추상적인 측면이 많다. 이는 곧 영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한국인들의 문장 해석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특정 전치사 하나를 정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사전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개별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on' 과 같은 경우 전치사의 의미로만 그 해석법이 대략 18가지에 이르고, 부사로는 9개에 이른다. 그리고 각 범주 별로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해석한 문장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본고의 *about*도 마찬가지다. Oxford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about*의 기본적인 용법은 전치사 7개, 부사 또한 7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전치사 학습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심한 경우, 학습자들은 전치사가 뚜렷한 연관성이 없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는 학습을 진행하지 않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전치사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그 결과 전치사가 해당되어 있는 전치사구를 마주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명사 수식어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수식어 중에서 전치사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박상준(2014)에 따르면

명사 전체 수식어의 비율을 100%로 이야기한다면 대략 80%에 해당하는 것이 전치사구의 영역이다. 따라서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어 독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어 공교육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전치사 관련 수업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도 전치사는 거의 마지막 장에 실리고, 그마저도 다른 문법적 개념이 나온 부분과 비교했을 때 그 분량이 적다. 실제 뒤이어 제시할 심층면담조사 내에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전치사 교육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또한 전치사 해석과 관련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어렵קות 정도로만 넘어가다 보니 다양한 위치에서 등장하는 전치사 표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 특히 본 논문의 주제인 전치사 *about*과 관련해서는 실제 많은 지문에서 다양한 쓰임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제한된 의미의 해석 외에는 *about*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about*은 in, out, on과 같은 공간적 의미가 분명한 것들과는 달리 관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서 *about*을 검색하면 전치사부터 형용사, 부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폭 넓게 분포하며 그에 따른 한국어 해석 또한 많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 각각의 의미를 다 외우지 않고, *about*의 추상적 속성에 해당하는 ‘~에 관해서’ 혹은 숫자 앞에서 ‘대략, 약’의 의미만을 가지고서 모든 의미의 해석을 시도한다. 그러다보니 학생 스스로가 알고 있는 *about*의 의미가 아닌 다른 표현(장소,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이 오게 되면 해석 자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의미 없는 문장이라 생각하여 그 내용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그 해당 문장에 대해선 의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모른 채로 그 문장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무리 전치사가 수업 내 분량이 적은 문법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사용법마다 설명을 제시한다. 그런데 왜 유독 전치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일까? 이런 질문과 함께 기존 전치사 교육 방식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연구자가 대학생 시절에 보았던 전치사의 이미지화에 관한 이기동(2015)의 ‘영어 전치사 연구’라는 책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치사의 개별적인 의미를 각 문장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그림이나

도식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로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응용시키도록 가르친다면 학습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치사 *about*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연구자는 그 해결 방식을 학습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총 60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영어성적 등급별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전치사 *about*에 대한 기존의 수업 방법과 이미지 수업 방법을 비교하여 학습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두 가지 다른 학습법이 *about*의 습득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각 학습법마다 학습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셋째, 두 가지 다른 학습법이 전치사 *about*의 속성(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 중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2 가설 설정

학생들은 단어 학습 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외우는 것 보다는 하나의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에 더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appreciate*’ 와 같은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그 의미가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로 세 가지 뜻이 겹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는 원형의 의미는 ‘진가를 인정하다’ 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적용하면 위의 세 가지 해석 모두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도 위의 언급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치사 학습도 다의어 단어 학습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형적 의미의 학습을 통해서 이후에 나오는 다

양한 변이형에 대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민채(2019), 송효진(2008)에 따르면, 전치사가 가지는 원형적 이미지와 도식을 통한 학습이 학생들의 전치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전치사의 변이형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능력이 향상됨을 증명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 영어사전상에 나와 있는 전치사의 개별적인 의미를 학습하는 방식보다는 그 전치사가 가지는 원형적 의미의 이미지 혹은 도식을 이용한 학습법이 전자의 방식보다 습득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학습 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미지 수업 방식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II. 선행 연구

본 논문은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수업 방식 속에서 영어 전치사 학습 시 발생하는 학습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미지와 도식을 이용하여 전치사의 원형적 이미지를 학습하는 수업 방식이 기존의 전치사 수업 방식보다 나을 것이란 가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 전치사는 *about*이다.

양용준(2021)은 EFL 환경 영어학습자들의 전치사 구조와 쓰임에 대한 이해정도를 분석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전치사의 구조에 대해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기능어 정도로 학습하고 있었다. 전치사와 관련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설문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대학교 교양 영어를 듣는 250(남78, 여12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치사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해의 정도를 세 가지(① 이해하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이해하지 못 한다)로 나누었을 때, ‘전치사’라는 질문에 ① 95.2%, ② 4%, ③ 0.80%으로 응답해 전치사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치사적 부사’와 ‘불변사’에서는 ‘이해하지 못 한다’라고 각각 81.2%, 98.4%가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전치사를 단순한 기능어의 개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위 논문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장소의 전치사(at, in, on, to, out of, across, down, next to)와 시간의 전치사(by, at, in, on, for, from, since, within)를 각각 8개씩 정하고 그들의 쓰임에 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장소의 전치사 이해 순서에서는 ‘in’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전치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at을 써야 하는 상황의 문장에서 학생들은 장소의 전치사에서 이해도가 높은 ‘in’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치사의 사용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전치사에 대한 의

미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절하게 써야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전치사에 관한 이해의 정도가 상당히 낮고, 간단한 의미 정도로만 습득을 하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치사를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는 것은 EFL 환경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어에 없는 개념인 전치사를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의미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전치사는 영어에서 그 자체로 쓰인다. 이기동(2015)은 개별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전치사가 하나의 공통적 의미로 묶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도식화하였다. 예를 들어 above를 대상으로 살펴보자. 기존 방식은 above에 대해서 ‘~ 위에’라는 뜻으로만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기동은 전치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행사 X라는 개념과 목적어 Y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이 선행사 X와 목적어 Y의 공간적 개념을 이미지로 나타낸다. 이것을 above에 적용하면 선행사 X가 수직, 수평선상에서 목적어 Y의 위쪽에 위치함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above가 등장하는 문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도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냈다. 이기동은 도식화한 내용을 토대로 above가 수치, 계급, 가치판단 등 다방면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음을 쉽게 나타냈다. 또한 이런 이미지화를 통해서 다른 전치사와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전치사 over와 above는 한국어 해석 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지화를 통해 over와 above를 알고 있을 경우, 두 전치사가 쓰인 상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A teacher is above a student와 A teacher is over a student를 비교해보면, 한국어 해석 상 두 문장에서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으나, 실제로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두 문장 모두 선생님이 학생보다 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above는 단순한 상하관계의 위치만을 나타내지만, over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제자인 학생에게 영향권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over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above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over의 경우 선행사 X가 목적어 Y의 위나 혹은 옆에서 덮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영향력이란 느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나 기존 방식으로 이러한 두 문장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차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즉, 각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차이를 바탕으로 그 뉘앙스의 차이 또한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지 학습법이 전치사 학습 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추가적으로 이런 방식의 전치사 설명 자료로, 남승홍(2014)과 박일호(1992)가 있다. 이들도 이기동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가지는 원형적 이미지의 도식화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전치사 *about*과 *of*의 의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또한 이기동의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원형적 의미가 추상적 영역으로 연장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치사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화를 파악한 연구로는 김민채(2019)가 있다. 이 논문은 한국 고등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공간 전치사 *at*, *on*, *in* 사용에 대한 인지언어학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민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치사의 의미 습득에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원형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적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전치사의 변이형과 추상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참가자들 중 영어 실력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엔 실력이 낮은 다른 학습자에 비해서 더 나은 문장 이해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치사의 확장 의미 습득에서는 학생들 간 전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치사 학습이 독립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전치사를 마주했을 때, 문맥적 상황보다는 자신이 잘 이해하는 전치사를 선호하였다. 이는 양용준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국 학생들의 전치사 학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의미형태를 벗어난 전치사 문장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지희(2014)는 영어 전치사를 전통적인 학습 방식과 원형 의미와 도식을 활용한 인지적 학습 방식을 비교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학습방식이라함은 사전에 열거된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를 관련성 없이 그대로 암기 학습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논문은 광주 K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총 40여 명을 두 개의 집단(통제집단,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학습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김지희는 해당 연구를 시작하기 전, 두 개의 집단이 동일한 집단이었음을 증명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두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인지문법에 근거한 수업 방식 내에서의 두 집단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단순 암기 방식의 전통적 전치사 수업 방식(통제집단)보다 전치사의 원형적 의미와 도식을 이해하여 의미를 파악한 집단(실험집단)이 시험 점수의 평균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경우 글의 맥락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해석을 비교적 정확히 해내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전치사의 이미지 학습법이 가지는 분명한 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유사한 연구로, 송효진(2008)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치사(on, in, at, off, out)의 기본적인 영상도식과 그림을 이용한 수업 방식과 예문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로 명시적 설명을 하는 수업방식을 비교하였다. 연구를 위해 6학년의 8개의 학급 중 평가 결과가 동일한 2집단을 선정하여, 비교반과 실험반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로 이루어졌고 두 평가 사이의 시간 간격은 7주였다. 사전 평가 결과는 두 집단에서 비슷한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 실험반은 31.81점, 비교반은 31.21점이었고,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 평가결과는 달랐다. 실험반의 평균 점수가 54.84점, 비교반은 34.69점이었고, $p < .05$ 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송효진의 연구 결과는 영상과 그림 자료를 통한 수업 방식이 기존의 문장을 통한 학습 방식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치사에 대한 일반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전치사가 잘 다뤄지지 않았다. 그에 더해 일반 학습자들이 전치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관심도 문제였다. 위의 다양한 연구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치사는 그 원형적 의미의 이미지를 통해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 학습자의 학습 수준이 향상되고 응용능력 또한 기존방식에 비해서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던 결과물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험 논문들은 다양한 전치사를 한 번에 다루고 있었고, 본 연구의 목적인 *about*에 대한 이미지 실험 방식을 찾을 수는 없었다. *about*은 다른 전치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일반 학습자들이 보기에 공통성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about*이 갖는 의미의 속성은 총 5가지로 분류되며, 각 의미는 유사성을 찾기 힘든 서로 다른 한국어 해석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치사 *about*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냈던 결과물이 *about*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김지희(2014)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기존 전치사 학습 방식과 이미지를 이용한 전치사 학습의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about*에 대해 그 원형적 이미지와 다양한 변이형을 일반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치사 *about*이 가지는 속성 중 어느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지, 실험을 통한 향상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밝혀낼 것이다.

Ⅲ. 전치사의 기본적 용법과 about의 의미 분석

3.1 전치사의 기본적인 용법

3.1.1 전치사

우리가 전치사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가지는 선행사와 목적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전치사의 선행사를 X라고 부를 것이고, 목적어는 Y라고 칭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X와 Y가 전치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동등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위상이 서로 다르다. 영어의 전치사에서는 모든 경우에 Y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Y의 기준에 맞추어 X의 위치와 방향이 결정된다. 다음의 예문 (1)의 a와 b를 살펴보자.

- (1) a. A man behind the door.
- b. The door behind a man.

위 두 문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자. (1a)의 경우는 한 남자가 문 뒤에 있는 상황이고, (1b)에서는 남자 뒤에 문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치사에서 선행사 X와 목적어 Y의 위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2 전치사적 부사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Y가 앞의 내용을 통해 예측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목적어 자리의 Y가 생략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전치사의 선행사에 해당하는 X만이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Y가 생략되어 자리가 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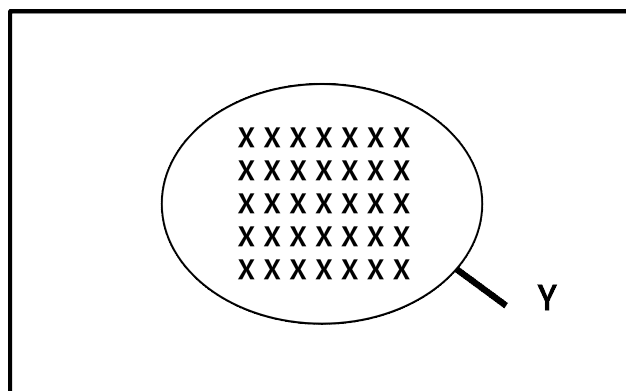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부사라고 부를 것이다. 아래 예문 (2)를 통해서 파악해보자.

(2) They came to the crosswalk and went across.

이 문장을 해석할 때 across의 목적어 Y는 무엇일까?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Y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the crosswalk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위 문장의 across의 목적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형태가 자리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across의 선행사 X와 목적어Y는 전치사를 기준으로 하여 직선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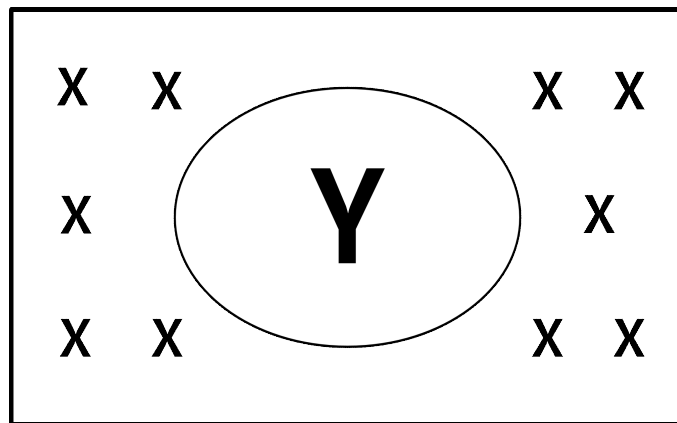
3.2 전치사 about의 의미 분석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앞선 설명에 따라 선행사 X를 취하고 그 뒤로 *about*이 위치한다. 이어서 *about*은 그 뒤로 목적어 Y를 취한다.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 *about*의 목적어 Y의 위나 그 주변으로 X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은 이기동(2015)의 설명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하였다.



<그림 1>

위 <그림 1>은 전치사 *about*이 가지는 의미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X’는 *about*의 선행사를 의미하고, ‘Y’는 그것의 목적어를 의미한다. 이 그림을 보면 선행사 ‘X’가 목적어 ‘Y’라는 공간 안에 다양한 지점으로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

위 <그림 2> 또한 전치사 *about*이 가지는 의미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X’는 *about*의 선행사를 의미하고, ‘Y’는 그것의 목적어를 의미한다. 이 그림을 보면 선행사 ‘X’가 목적어 ‘Y’라는 공간을 여러 지점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치사 *about*의 다양한 쓰임새를 살펴볼 것이다. *about*의 용법은 총 5가지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이다. 각 속성에 대해서 예문이 6개가 할당될 것이다. (예외: 행동 및 과정은 9개) 그리고 각 의미에 대한 그림 설명이 2개씩 첨부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그림은 모두 자체 제작하였다.

3.2.1 장소

다음의 예문 (3)에 나오는 문장에서 *about*은 선행사 X가 목적어 Y의 위나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장소의 의미를 나타낸다.

(3) a. They wandered about the town for an hour or so.

그들은 한 시간 정도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b. Forty or sixty people gathered about the cafe.

사십에서 육십명의 사람들이 카페 주변에 모였다.

c. He has some money about him. (이기동, 2015:15)

그는 몸 어딘가에 돈을 좀 가지고 있다.

d. The toys were scattered about the room.

장난감이 방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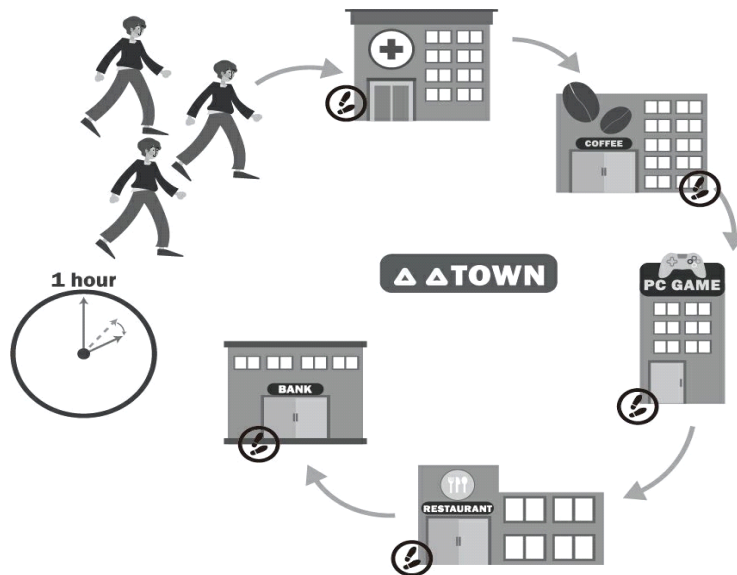
e. I have no money about me.

나는 내 몸 어딘가에 가진 돈이 없다.

f. There were trees dotted about the field.

들판 여기저기에 나무가 서 있었다.

위 예문 (3)에서 각각의 경우, *about*의 선행사 X는 Y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 위에 혹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다. 여기서 예문 (3a)와 (3c)를 그림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그림 3>

(3a) They wandered about the town for an hour or so.

<그림 3>은 (3a)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서 정립한 $X \text{ about } Y$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위의 <그림 3>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문장에서 *about*의 목적어 Y 는 있지만, 선행사 X 는 없어서 추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측해보자면 선행사 X 에 해당하는 내용은 ‘They wandered’가 될 수 있다. 선행사의 내용은 ‘그들이 돌아다녔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X 의 역할을 하며 *about*의 목적어 Y 의 내부 혹은 그 주변을 여러 개의 점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장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주어에 해당하는 ‘그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에 속해 있는 다양한 장소 (병원, 카페, PC방, 식당, 은행)를 각각 하나의 점으로 방문하며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a) 문장의 해석은 ‘그들은 한 시간 정도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about*이 가지는 의미는 ‘장소’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기저기’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3c) He has some money about him.

<그림 4>은 (3c)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bout 앞은 선행사 X이고, 그 뒤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Y라고 정한다. 일단 선행사 X에 해당하는 내용은 ‘money’이다. 이제 이 선행사 X가 *about*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Y인 ‘him’에 위나 혹은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기반으로 문장을 다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He’에 해당하는 한 남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돈이 그의 몸 이곳저곳에 위치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의 손에 돈이 쥐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그의 몸 주변을 쪽 돌아보면 상의 주머니에 하나, 바지 양쪽 주머니에 둘, 예비 주머니에 또 하나, 이렇게 돈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그는 몸 어딘가에 돈을 좀 가지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about*에 해당하는 의미는 ‘장소’의 속성을 가진 ‘어딘가에’ 혹은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3b), (3d), (3e), (3f)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장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2.2 수치

다음의 예문 (4)에 나오는 문장에서 *about*은 선행사 X가 목적어 Y의 위나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수치의 의미를 나타낸다.

- (4) a. He came at about 9:30.
그는 대략 9시 30분에 왔다.
- b. He is about 70 years old.
그는 약 70세이다.
- c. They were about 5 feet long.
그것들은 길이가 대략 5피트였다.
- d. It costs about \$20.
그것은 (값이) 약 20달러 한다.
- e. I arrived there about six o' clock[midnight].
나는 6시[밤중]쯤 거기에 도착하였다.
- f. We went about seven miles.
우리는 약 7마일을 갔다.

여기서 (4a)와 (4c)문장을 아래에 <그림 5>, <그림 6>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그림 5>

(4a) He came at about 9:30.

<그림 5>은 (4a)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수치’의 표현이라고 해서 *about*의 의미 해석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여전히 *about*의 앞부분을 선행사 X라고 정하고, 그 뒤를 목적어 Y로 설정할 것이다. <그림 5>의 ‘수치’의 부분에서 우리는 전치사 *about*의 선행사 X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림 3>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행사의 의미를 추리를 해야 한다. (4a)에서 *about*의 목적어 Y는 시간을 나타내는 9시 30분이다. 선행사 X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는 추측을 통해 ‘그가 왔다’가 X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가 왔다’가 선행사 X의 의미를 띄고, 그것이 목적어 Y의 주변에 있다고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문을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에 시간을 보니 대략 9시 30분을 기준으로 도착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정확하게 9시 28분인지, 9시 29분인지, 오히려 9시 31분인지 그 지점이 명확하진 않은 것이다. 9시 30분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여러 점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점을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9시 30분 그 근처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할 경우 ‘그는 대략 9시 30분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about*이 가지는 의미는 ‘대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

(4b) He is about 70 years old.

<그림 6>은 (4b)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bout*의 목적어 Y는 70세이고, 선행사 X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 한다. 여기서 위의 (4a)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행사 X를 ‘He is’로 추정할 수 있다. *about*의 경우 선행사 X는 목적어 Y의 위나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 한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서 걸어가는 한 남자를 보고 있다. 여기서 여자는 생각한다. 본인의 눈앞에 있는 남자의 나이를 추측해보는 것이다. 걸음으로 보이는 외모와 걸음걸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여부 등 여러 가지 단서를 토대로 남성의 나이를 추측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는 노인과 대화를 통해서 나이를 알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그림 속 여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 속 다양한 단서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여자는 본인의 추리를 바탕으로 노인의 나이를 60세 후반에서 70세 초반 사이 그 어디쯤으로 나이를 가늠한다. 즉, 명확하진 않지만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이 대 부근 어딘가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b)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대략 70세의 나이이다.’로 해석한다. 그리고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수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략’ 혹은 ‘약’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머지 (4c), (4d), (4e), (4f)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수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2.3 추상적 속성

우리는 물건이나 대상이 앞에 있을 때, 이를 여러 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해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컴퓨터 전문 업체 중 한 곳에 들어갔고, 우리 눈앞에 수많은 종류의 컴퓨터가 나란히 줄지어 있다. 컴퓨터는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된다. 그리고 그 본체와 모니터의 크기와 색상,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양이 각 컴퓨터마다 천차만별이다. 우리가 컴퓨

터를 구매할 때,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종합하여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구매한다. 그 속성은 단순한 디자인일수도 있고, 사양 자체에만 초점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속성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판단한다. *about*의 사용은 바로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5)를 살펴보자.

(5) a. What's the best thing about the computer?

그 컴퓨터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b.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수상한 점이 있다.

c. His father wants to know all about his girlfriend. (이기동, 2015:17)

그의 아버지는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d. Games are all about making money these days.

요즘엔 게임이 온통 돈벌이하고만 관련된 일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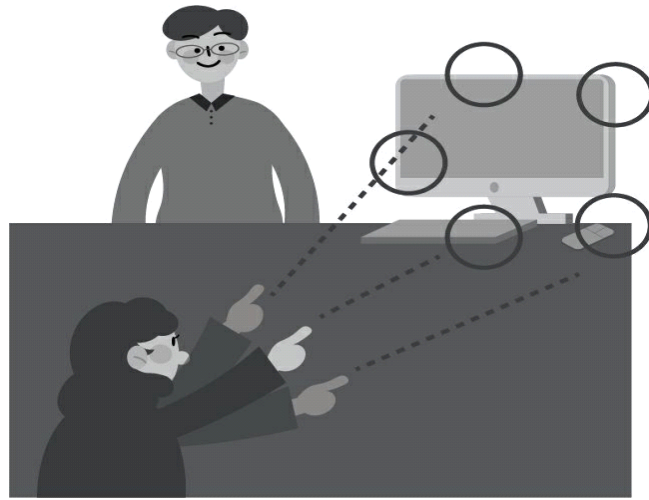
e. He gave instructions about the business.

그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사항을 주었다.

f. What's your opinion about his work? (이기동, 2015:17)

그의 작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5a)와 (5b)문장을 아래에 <그림 7>, <그림 8>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그림 7>

(5a) What's the best thing about the computer?

<그림 7>은 (5a)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about*의 선행사 X는 ‘the best thing’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적어 Y는 ‘computer’가 될 것이다. 선행사 X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Y의 위나 혹은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이미지를 적용하여 (5a)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 여성이 컴퓨터를 사러 매장에 들어섰다. 다양한 컴퓨터를 보며 그 여성은 무엇을 구매할지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던 중, 이 여성은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발견하고 그 상품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큰돈을 쓰는 만큼 구매를 하기에 앞서 이 여성은 고민에 빠진다.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받기로 결심한다. 이 여성은 본인이 사고자 하는 그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서 매장 직원에게 구매 전 필요한 정보를 묻는다. 눈앞에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에서부터 모니터의 아래 부분의 디자인, 모니터 상단의 카메라 여부, 모서리 특징, 마우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정보를 묻는다. 이와 같이 컴퓨터의 속성에 대한 하나하나의 지점을 꼭 둘러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의 속성을 통해서 <그림 7>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자면, ‘그 컴퓨터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에 대해서’ 혹은 ‘~에 관해서’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5b)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about her.

<그림 8>은 (5b)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위 문장에서 전치사 *about*의 선행사 X는 ‘something suspicious’라고 볼 수 있고, 목적어 Y는 ‘her’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사 X는 목적어 Y의 위나 혹은 그 주변으로 흩어져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한 경찰이 지명수배범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경찰은 길을 가다가 마스크를 낀 여성을 발견하고는 뭔가 수상함을 느낀다. 수배지에서 봤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이때, 경찰은 이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수배지에서 봤던 인상착의와 당시의 옷차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생김새 외에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찾기로 한다. 마스크 위로 나타난 얼굴의 전반적인 모양부터 어깨 선, 손에 특징과 신발의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 수상한 커다란 봉지에 이르기까지 조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about*의 이미지의 속성을 가지고서 위 예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자면 ‘그녀에 대한 수상한 무언가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about*의 의미는 ‘~에 대해서’ 혹은 ‘~에 관해서’ 정도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나머지 (5b), (5d), (5e), (5f)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추상적 속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2.4 행동 및 과정

전치사 *about*은 주어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을 총 3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게 될 ‘예정’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어떤 행위의 시작점 근처에서 발생하는 일을 묘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진행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다.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시작했고, 그 행동이 연속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bout*이 과거분사와 함께 쓰여서 특정 행동 과정의 마지막 근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아래의 예문 (6)을 살펴보자.

(6) a. The airplane is about to leave.

그 비행기가 막 떠나려고 하다.

b. He was about to go out.

그는 막 나가려고 했다.

c. The TV show is about to begin.

그 TV쇼가 막 시작하려 한다.

d. They were about to cross the street.

그들은 막 길을 건너가려 하고 있었다.

e. I was about to go to sleep.

나는 막 잠들려고 했다.

f. I'm not about to pay five dollars for it.

나는 거기다가 5달러나 지불할 생각은 없다.

g. The breakfast is about cooked.

아침이 거의 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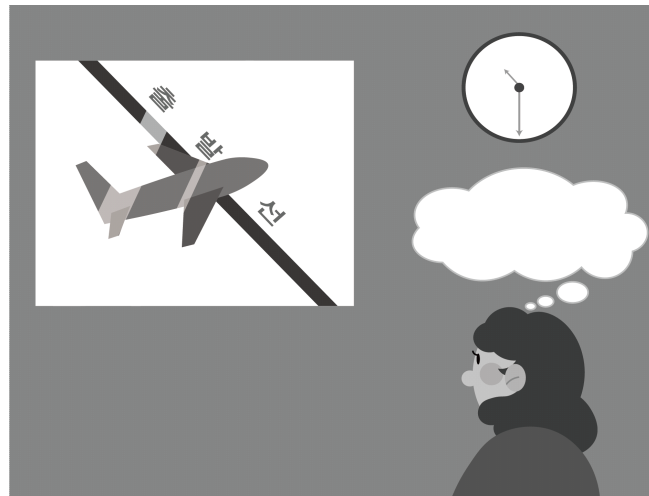
h. The building is *about* built. (이기동, 2015:22)

그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다.

i. The tea is *about* boiling.

그 차가 거의 끓으려고 하다.

여기서 (6a)와 (6i)문장을 아래에 <그림 9>, <그림 10>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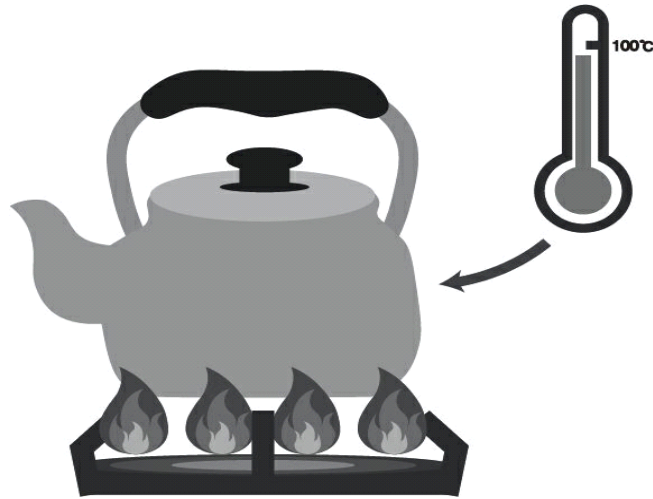
(6a) The airplane is about to leave.

<그림 9>은 (6a)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위 문장에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인 Y는 ‘to leave’ 라고 볼 수 있다. 선행사 X의 경우, 앞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추측을 통해 ‘The airplane is’ 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사 X에 해당하는 내용인 ‘비행기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 *about*의 목적어인 ‘to leave’ (앞으로 떠나려는 동작을 나타냄)의 그 위나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 여성이 공항 객실 내부에 앉아서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

자.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가 손님을 다 태우고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비행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했다고 보긴 어렵다. 여자는 그 비행기가 손님을 태우고 활주로를 이동하는 모습을 본다. 아직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 중이라 여자가 바라보고 있던 비행기는 대기 중이었다. 드디어 그 비행기가 출발할 순서가 왔다. 비행기는 이륙 전 엔진을 돌리며 출발선 근처에 도달했다. 출발선 근처 도착했기 때문에 비행을 시작하진 않았으나, 비행기의 이륙은 곧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about*의 이미지의 속성을 가지고서 위 예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6a)의 예문을 ‘비행기가 막 떠나려고 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about*의 의미는 ‘막 ~ 를 하려고 하는’ 정도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는 이것을 be동사와 to 동사를 함께 붙여서 ‘be *about* to’ 로 만들고 ‘막 ~ 하려고 하다.’의 속어로 해석을 한다.



<그림 10>

(6i) The tea is about boi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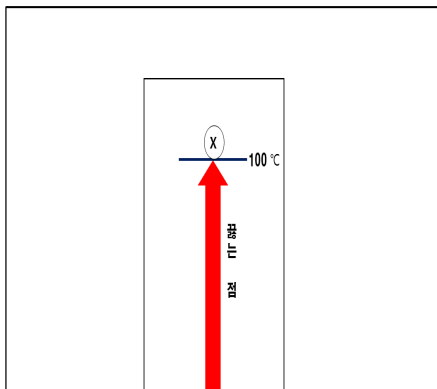
<그림 10>은 (6i)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위 문장에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인 Y는 ‘boiling’ 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사 X의 경우, 우리는 추측을 통해 ‘The tea is’ 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사 X에 해당하는 ‘그 차가 존재하다’ 라는 표현이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인 ‘boiling’ 이라는 동작의 위나 그 주변으로 흩어져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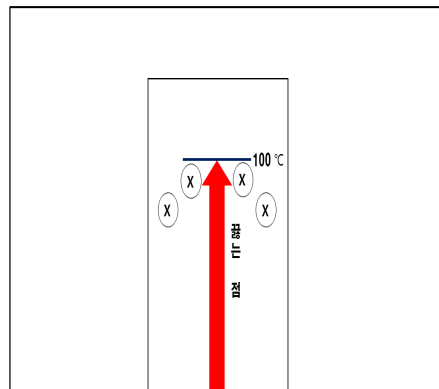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하나 올라가 있다. 따뜻한 차를 마시기 위해 불을 켜고 끓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시간이 흘러 물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끓는 점 거의 직전에 온 상황이 된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boiling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위 예문 (6i)를 해석할 수 있다. 그 의미는 ‘그 차가 거의 끓으려고 한다.’로 나타낼 수 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그림을 통해 <그림 11>의 a. boiling과 <그림 12>의 b. *about* boiling을 그림으로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a. boiling.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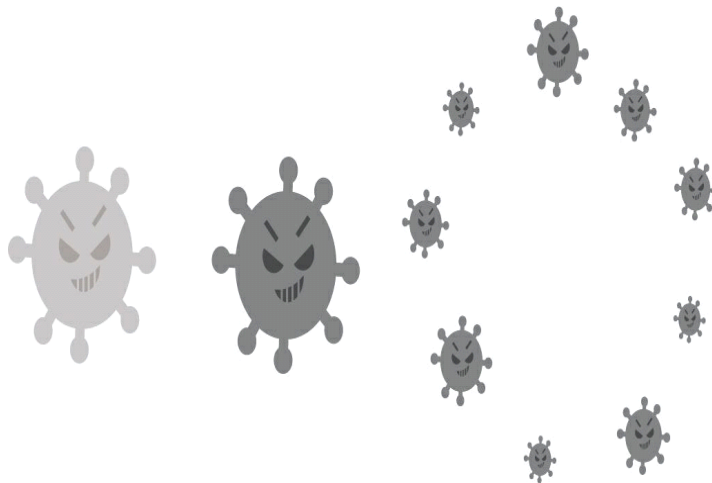
b. *about* boiling.

3.2.5 부사적 용법

*about*의 부사적 용법의 경우, 전치사로 쓰일 때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보인다. 전치사로 사용되는 *about*의 경우, 선행사 X와 목적어 Y를 취하지만,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 하게 되면, 앞선 설명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about*의 목적어 Y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예문 (7)을 통해서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7) a. The Covid-19 is about.
코로나가 유행 중이다.
- b. He has left papers about. (이기동, 2015:23)
그는 서류를 여기저기 흩어 놓았다.
- c. The drivers slow down when they see children about. (이기동, 2015:23)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달린다.
- d. There is nobody about.
주위엔 아무도 없다.
- e. The tools lay about.
도구가 주위에 흩어져 있다.
- f. Tim is somewhere about.
Tim은 어딘가 그 근처에 있다.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7a)와 (7c)문장을 아래에 <그림 13>, <그림 14>을 통해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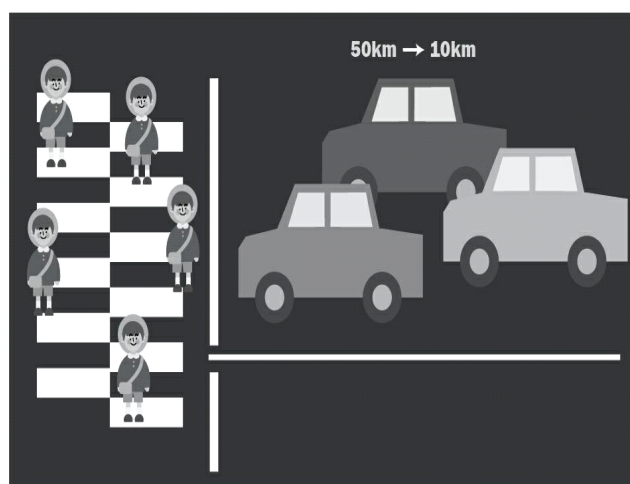
<그림 13>

(7a) The Covid-19 is about.

<그림 13>은 (7a)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3>에서는 *about*에 관한 분석이 기존과는 다른 방향을 띄게 된다. *about*의 선행사인 X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같이 ‘The Covid-19 is’ 으로 잡을 수 있다. 목적어인 Y는 생략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예문(7a)를 말하는 화자가 사는 곳이나 있는 곳이 Y가 될 수 있다. 선행사 X에 해당하는 ‘코로나 19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 부사 *about*의 생략된 목적어의 위나 그 주변으로 흩어져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등장을 했다. 처음에는 몇 명만이 감염되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윽고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위 예문을 말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이미 이곳저곳 코로나가 퍼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위의 예문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석을 하자면, ‘코로나가 유행 중이다’ 혹은 ‘코로나가 여기저기에 퍼져있다.’ 정도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about*의 의미는 ‘여기저기에’ 혹은 ‘퍼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4>

(7c) The drivers slow down when they see children about.

<그림 14>는 (7c)의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about*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7c) 문장에서 *about*에 관한 분석도 <그림 13>과 같이 부사적 용법을 가지고서 나타낼 수 있다. *about*의 선행사인 X는 ‘children’으로 잡을 수 있다. 목적어인 Y는 생략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운전수가 차를 몰고 있는 곳이 Y가 될 수 있다. 선행사 X에 해당하는 ‘아이들’라는 표현이 부사 *about*의 생략된 목적어의 위나 그 주변으로 흩어져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있었다. 그들이 한참을 달려오던 중,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다. 이때, 아이들은 횡단보도에 일직선이나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닌,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그 주변 여러 지점의 위치에서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을 해보자면,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며 천천히 달린다.’ 정도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about*의 의미는 ‘주위에’ 혹은 ‘사방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IV. 심층 면담 및 논의

4.1 심층 면담 대상 및 절차

4.1.1 심층 면담 대상

심층 면담의 참가의 인원은 총 60명(남학생: 40명, 여학생: 20명)이며, 제주도내 5곳의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학교에서 내신 및 모의고사를 1등급에서 3등급을 받는 학생들로 모집되었다. (1등급: 20명, 2등급: 20명, 3등급: 20명). 설문 시에 기본적인 대답이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4등급 이하의 참가자들은 응답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거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들은 심층 면담이 끝나고 난 뒤 보상을 지급 받았다.

4.1.2 심층 면담 질문

전치사에 대한 이해와 본 연구의 목적인 *about*을 조사하기 위해 총 5가지의 질문이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 ① *about*의 품사를 말하십시오.
- ②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전치사 부분만을 따로 학습 받은 적이 있는가?
- ③ 전치사 관련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 ④ *about*의 의미를 말하십시오.
- ⑤ *about*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구동사를 말하십시오.

4.1.3 심층면담 방법 및 절차

조사는 1:1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지 조사로는 응답의 정확성이나 그 정도가 불명확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가자와 대면한 상황 속에서 각 질문이 이루어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이어나갔다. 면담 진행시 참가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각 질문에 성실히 대답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한을 두진 않았다.

4.2 심층면담 결과

4.2.1 질문유형 ①에 대한 결과

질문유형 ①에 해당하는 “*about*의 품사를 말하십시오”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등급은 15명이 전치사라고 응답했고, 2등급은 14명이 전치사라고 응답했으며, 3등급은 11명으로 나타났다. 부사라고 응답한 학생은 1등급에서 2명, 2등급도 마찬가지로 2명, 3등급은 오직 1명만이 부사라고 응답하였다. 전치사와 부사 둘 다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등급 집단에서만 있었으며, 그 응답을 한 학생 수는 총 2명이었다. 2등급과 3등급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름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등급에서 1명, 2등급에서 4명, 3등급에서 8명으로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그 숫자가 높아졌다.

〈표 1〉 ‘*about*’의 의미 질문에 대한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전치사	부사	전치사/부사	모름
1등급	15	2	2	1
2등급	14	2	0	4
3등급	11	1	0	8

4.2.2 질문유형 ②에 대한 결과

질문유형 ②에 해당하는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전치사 부분만을 따로 학습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등급 집단의 경우 전치사 관련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7명이었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3명 이었다. 2등급 집단의 경우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8명이었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한 학생은 1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3등급 집단의 경우 ‘받은 적이 있다’는 6명,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질문 2번에 대한 응답의 결과, 각 등급별로 눈에 띄는 학생 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영어 수업 시간에 전치사를 따로 학습한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1등급	7	13
2등급	8	12
3등급	6	14

4.2.3 질문유형 ③에 대한 결과

질문유형 ③에 해당하는 “전치사 관련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등급 학생들의 경우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8명, ‘독학으로 공부’라고 답을 한 학생 수는 11명, ‘학원을 통한 학습’이라고 답을 한 학생은 1명이었다. 2등급 학생들의 경우, ‘공부 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한 학생 수는 4명, ‘독학으로 공부’라고 답을 한 학생의 수는 11명, ‘학원을 통한

학습' 이라고 답을 한 학생 수는 5명이었다. 3등급 학생들의 경우, '공부 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5명, '독학으로 공부' 라고 응답한 학생은 8명, '학원을 통한 학습' 이라고 답을 한 학생 수는 총 7명이었다. 질문 3에 대한 면담 결과, 예상과는 달리 1등급에서 '공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 숫자가 가장 많았고, 2등급과 3등급에서는 그 숫자가 대략 1/2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집단에서 전치사 학습에 대한 응답 비율이 1등급 집단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전치사 공부는 방식에 대한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공부하지 않았다	독학으로 공부	학원을 통한 학습
1등급	8	11	1
2등급	4	11	5
3등급	5	8	7

4.2.4 질문유형 ④에 대한 결과

질문유형 ④에 해당하는 “*about*의 의미를 말하십시오.” 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등급 학생들의 경우, ‘~에 대하여/관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총 인원 20명 중 20명이었다. ‘대략’ 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6명이었다. 그리고 ‘기타’ (여기저기/~할 즈음에)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명이었다. 2등급 학생들의 경우, ‘~에 대하여/관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등급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0명 전원이 응답을 했다. ‘대략’ 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4명이었고, ‘기타’ (방금/여기저기/~할 즈음에)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2명이었다. 3등급 학생들의 경우, ‘~에 대하여/관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여전히 20명 전원이 응답을 했다. 그러나 ‘대략’ 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위 두 집단이 응답한 수에 절반으

로 대폭 떨어져서 7명만이 대답하였다. ‘기타’ (방금)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명이 있었다.

〈표 4〉 전치사 공부는 방식에 대한 응답자 수

(단위: 명)

구분	~에 대하여/관해서	대략	기타	비고*
1등급	20	16	1	여기저기/~할 즈음에
2등급	20	14	2	방금/여기저기/~할 즈음에
3등급	20	7	1	방금

*비고는 기타 응답에 대한 세부내용을 의미함

4.2.5 질문유형 ⑤에 대한 결과

질문유형 ⑤에 해당하는 “*about*에 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구동사를 말하십시오.”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1등급의 경우 ‘모름’으로 응답한 학생 수는 7명으로 나타났으며, ‘be about to’는 10명, ‘bring about’는 11명, ‘think about’은 2명, ‘set about’은 1명, ‘talk about’은 1명이었다. 2등급의 경우 ‘모름’이라고 응답을 한 학생 수는 5명, ‘talk about’은 3명, ‘bring about’: 8명, ‘be about to’: 8명, ‘learn about’은 1명, ‘look about’도 1명이 응답하였다. 3등급의 경우, ‘모름’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3명, ‘be about to’는 4명, ‘bring about’은 3명, ‘talk about’은 1명이 응답하였다.

〈표 5〉 ‘about’에 관해 알고 있는 구동사 응답결과 (1등급)

(단위: 명)

구분	모름	be about to	bring about	think about	set about	talk about
1등급	7	10	11	2	1	1

〈표 6〉 ‘about’ 에 관해 알고 있는 구동사 응답결과 (2등급)

(단위: 명)

구분	모름	talk about	bring about	be about to	learn about	look about
2등급	5	3	8	8	1	1

〈표 7〉 ‘about’ 에 관해 알고 있는 구동사 응답결과 (3등급)

(단위: 명)

구분	모름	be about to	bring about	talk about
3등급	13	4	3	1

4.3 논의

질문유형 ①번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1등급에 위치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about*이 전치사라고 답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는 상당히 적었으며, 아예 ‘모르겠다.’ 라고 응답을 한 학생은 해외 유학을 다녀온 학생인 점이 놀라운 사실이었다.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그 구분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나 3등급 부근의 학생들은 *about*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으며, 첫 번째 질문에서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이 질문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about*의 기본적인 문법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심층면담의 결과는 이후에 나올 실험 내용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품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낮은 위치에서 등장하는 *about*에 큰 어려움을 보여준다.

질문유형 ②번은 참가자들이 공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전치사 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고자 하는 질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모든 집단 내에서 ‘받은 적이 없다.’가 ‘받은 적이 있다’보다 많았고, 대략 1.5~2배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치사의 영역은 잘 배우지 못하고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은 대부분이 여학생들(총 14명)이었고, 남학생은 그에 절반인 7명만이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치사 수업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들과 추가적인 면담을 한 결과, 그 수업 내용은 지문 내에서 전치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전치사가 가질 수 있는 품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해선 거의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질문유형 ③번은 참가자들의 전치사 학습 방식을 묻는 내용이었다. 의외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치사와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고(총 8명), 2~3등급의 학생들은 그에 비해 공부한다는 응답을 더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 1등급 학생들은 다른 부분의 문법 사항을 챙기다보니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3등급 학생들은 전치사 해석 시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때그때 학습을 하려고 한다고 대답하였다. 학습 방식에는 독학으로 공부한다는 학생이 제일 많았고, 대개 예문과 문법책을 통한 학습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3등급 학생들의 학원을 통한 학습은 나머지 두 집단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3등급 집단에 있는 대부분은 학생들은 전치사에 대한 느낌이 막연하여 그 의미를 잡는 게 어렵다고 대답을 하였다.

질문유형 ④번은 본격적인 *about*의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모든 집단에서 ‘~에 대해서/관해서’라는 의미를 문제없이 대답하였고, 그 뒤를 ‘대략’이라는 의미가 자리를 잡았다. 그 외에 해당하는 *about*의 의미를 답한 학생은 1등급 집단에서 1명, 2등급 집단에서 2명, 3등급 집단에서 1명이 나오면서 아주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치사 *about*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질문유형 ⑤번은 각 참가자가 알고 있는 *about*을 이용한 구동사의 여부였다. *be about to*와 *bring about*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그 외엔 모든 집단에서 다름을

보여주지 못했다. 3등급 집단에선 답을 하지 못한 인원은 20명 중 13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about*이 포함된 다양한 구동사를 보여주었으나, 그 의미를 파악한 학생이 드물었다. 1등급 학생들의 경우, 문맥을 통해서 어림잡아 대답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2등급과 3등급에서는 그조차 잘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치사 *about*의 구동사를 잘 알지 못한 채로 문장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동사의 개념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60명의 참가자와 위의 질문 5가지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about*의 품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about*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해석할 때,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논문의 주제인 *about*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면담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 자체로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물론 독학으로 한다는 결과물과 학원에서의 학습이라는 응답도 있긴 하였으나, 그 문장에서 사용된 개별적인 의미 학습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다. 아마 추측컨대 전치사 *about*이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았다.

영어에서 명사 수식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명구’, 즉 전치사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이 가지는 전치사의 학습 빈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3등급 이하로는 그 파악 정도가 상당히 낮아, 이후의 학습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V. 실험 및 결과 분석

5.1 실험 방법

5.1.1 실험 대상

참가자는 총 60명으로 앞선 심층면담에 응답했던 인원들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였다.

5.1.2 실험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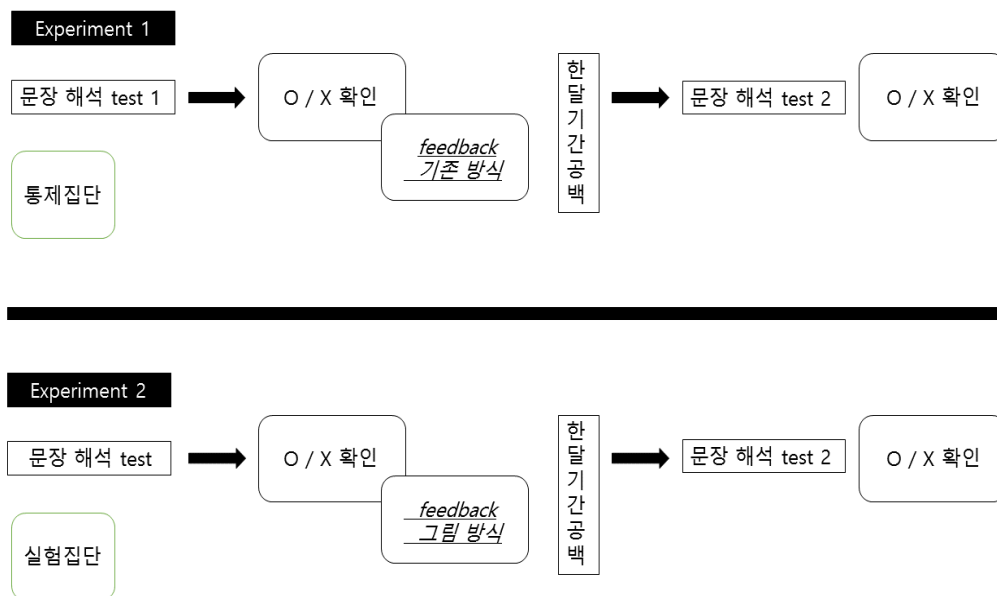
실험 문장으로는 전치사 *about*의 대표적인 5가지 의미(장소, 수치, 추상적 의미,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제시했다. 문장수와 난이도는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1차 시기에는 ‘Type 1’ 질문지가 사용되었고, 2차 시기에는 나머지 ‘Type2, Type3’ 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부록 참고)

5.1.3 실험 절차

1~3등급 참가자들을 각 등급 당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1등급 집단 20명을 10명씩 2개의 집단으로 묶었다. 2등급과 3등급 집단도 위와 마찬가지로 집단1과 집단2로 분류하였다. 분류 방식은 무작위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첫 번째 집단은 통제집단이며, 두 번째 집단은 실험집단이다. 실험 진행은 연구자와 참가자가 1:1로 대면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이 시작되면, 참가자는 *about*이 들어간 10개의 문장을 보게 된다. 각 문장은 *about*이 갖는 5가지의 의미 중 1가지를 담고 있고, 참가자는 그 문장을 무작위의 순서로 제공받는다. 각 의미의 유형 당 2개의 문장이 할당되었다. 참가자가 여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만약 참가자가 문장 내의 단어 의미를 모를 경우, *about*을 제외하고 모든 의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모든 실험 문장을 처리하고 난 뒤, 통제 집단은 기존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전치사 수업처럼 전치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설명 받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참가자들을 모아 다시 한 번 실험 내용을 반복하였다. 1차 실험과 2차 실험에서 *about*에 관한 참가자들의 해석 능력에 변화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피드백 영역에서 통제 집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전치사 설명 방식이 아닌 이미지를 이용한 기법으로 *about*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각 의미(장소, 수치, 추상적 의미,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에서 대표적인 문장을 몇 개를 발췌하여 그에 관한 그림 설명을 덧붙여 문장을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후 통제 집단과 마찬가지로 한 달 뒤 다시금 같은 방식으로 의미해석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조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앞서 설명한 실험 절차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 실험 절차

5.1.4 feedback 방식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feedback 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1차 시기에 Type 1에 해당하는 지문을 제공받았다.

예문에 대한 해석여부 확인이 끝난 후, 통제집단은 *about*이 총 5가지 용법(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며, 품사로는 전치사와 부사로 사용된다고 구두로 설명을 받았다. 장소의 의미로 *about*이 쓰일 경우 그 뜻은 ‘여기저기, 도처에’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였다. 3.2.1의 ‘a’ 예문으로 살펴보자. a. They wandered *about* the town for an hour or so. 다음 문장의 경우, 학생들에게 *about*은 전치사로 쓰였다고 알려주었고,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확인하고 의미상 장소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석은 앞서 설명한 장소의 의미를 넣어 ‘그들은 한 시간 정도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로 해석하였다. *about*이 숫자 앞에서 사용될 경우 수치적 뜻으로 해석이 되며 부사적 용법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략, ~쯤, ~ 경’ 으로 설명하였다. 관련 예문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확인시켰다. 추상적 속성으로 사용될 때는 전치사이며 그 의미는 ‘~ 에 대해서(무엇의 주제나 연관성을 나타냄)’ 그리고 ‘~에 관한 , ~에 관련된’ (무엇의 목적이나 측면을 나타냄)으로 설명하였다. 관련 예문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확인시켰다. 행동 및 과정의 경우, 부사와 형용사로 사용되며 그 의미는 ‘거의, 대략, 약간’ 그리고 ‘이제 막~ 하려’ 로 설명하였다. 관련 예문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확인시켰다. 부사적 용법의 경우, 그 의미는 ‘여기저기에, 근처에, 사방에’ 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관련된 예문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확인시켰다.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feedback을 받았다. 일단 품사적인 설명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개별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전치사 *about*이 갖는 도식적인 이미지를 먼저 제공받았다. 설명할 때, 3.2 전치사 *about* 의미 분석에 있는 <그림 1>과 <그림 2>를 이용하였다. 그림을 활용하여 *about*이 가지는 선행사 X와 목적어 Y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여 주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선행사 X가 목적어 Y의 내부에 혹은 그 주변이나 위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이 그 도식적인 이미지

를 인지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각 예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사용된 그림 3.2.1에 나오는 장소의 속성에 해당하는 <그림 3>에서부터 3.2.5에 나오는 부사적 속성 <그림 14>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장소의 속성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예문 a. They wandered *about* the town for an hour or so.를 보고 난 뒤, <그림 1>과 <그림 2>를 보여주어 전치사 *about*의 선행사와 목적어의 개념을 이해시켰다. 그 후에 <그림 3>을 보여주며 문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선행사 X를 ‘They wandered’ (그들은 돌아다녔다)라고 알려주고 난 뒤 그 선행사가 목적어 Y에 해당하는 town의 위나 혹은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들이 마을에 있는 여러 지점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참조하며 ‘그들은 한 시간 정도 시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로 해석을 하였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9가지의 예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2 1등급 집단 실험 결과

5.2.1 분석

전치사의 이미지 학습법과 기존 전치사 학습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불성실한 피험자가 없어서 모든 피험자의 데이터가 그대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통계는 SPSS (V.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두 집단 (통제, 실험) 피험자들의 사전, 사후 응답률을 조사하였고, 학습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또한 각 집단 내의 사전, 사후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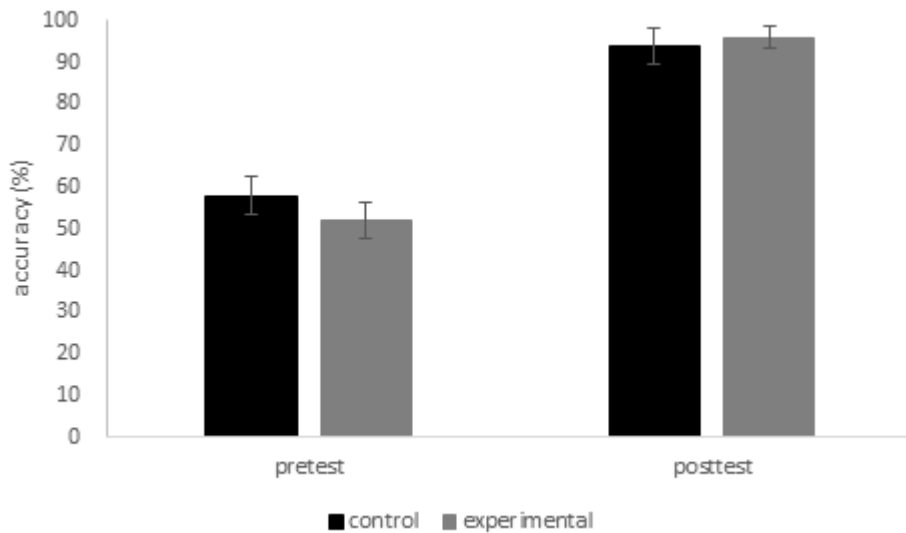
5.2.2 결과 및 논의

1등급 집단의 실험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집단 내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정답률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통제집단(전통적 문법학습을 수행한 집단)의 경우, 사전 정답률(M = 58, SD = 14.76)이 사후 정답률(M = 94, SD = 13.50)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t(9) = -5.51, p = .000$). 이런 학습효과는 실험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후 정답률(M = 96, SD = 8.43)이 사전 정답률(M = 52, SD = 13.98)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9) = -8.82, p = .000$). 즉, 전통적 학습법과 이미지 학습법 모두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이끌어냈다.

둘째, 학습효과가 어떤 학습법에서 더 크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사전-사후 정답률을 비교하는 독립집단 T-검정을 시행하였다. 우선, 사전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 통제집단(M = 58, SD = 14.76)과 실험집단(M = 52, SD = 13.98)의 정답률은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t(18) = .933, p = .363$). 이는 두 집단 간 실력의 차이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과는 사후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에도 관찰되었다. 즉, 통제집단(M = 94, SD = 13.50)과 실험집단(M = 96, SD = 8.43)의 정답률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t(18) = -.397, p = .696$). 이 결과는 1등급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이미지 학습법이 추가의 학습 효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표 8> 1등급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정답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조건		N	평균	표준편차
사전_정답률	통제집단	10	58	14.76
	실험집단	10	52	13.98
사후_정답률	통제집단	10	94	13.50
	실험집단	10	96	8.43



<그림 16> 1등급 집단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정답률

아래 <표 9>를 참고하여 위 실험 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기에 *about*이 가지는 ‘장소’의 속성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가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집단에 단 1명을 제외하고는 *about*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문장 자체의 의미는 어렵듯이 해석을 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about*에 관한 명확한 의미를 대답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2차 시기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올바른 응답을 한 학생 수가 9명으로 상승하였다. 이와는 달리 ‘수치’와 ‘추상적 속성’의 경우엔 1차 시기와 2차 시기 모두에서 학생 전원이 정답을 맞혔다. ‘행동 및 과정’의 경우 1차 시기에 통제집단은 7명의 학생이 올바른 응답을 했고, 실험집단에서는 5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개념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2차 시기에는 두 집단 모두 학생 전원이 정답을 맞혔다.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에서의 정답자 수를 살펴보면, 1차 시기에 통제집단에서 단 2명, 실험집단에서는 0명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고 나서 2차 시기에서는 통제집단 8명, 실험집단 9명으로 그 수가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지금껏 1등급 학생들 대다수는 *about*이 가지는 ‘수치’와 ‘추상적 속성’의 의미만을 가지고서 해석해 왔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비록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행동 및 과정’ 과 관련된 개념이 있다. 그러나 ‘장소’ 와 ‘부사적 용법’ 의 경우엔 그 이해 상황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달리 1등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about*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등급 집단의 실험을 통해서 전치사의 이미지 학습 트레이닝이 학습 효과에 큰 차이를 주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유의미성을 찾기가 어렵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피드백을 받고 난 뒤, 이후에 실시한 테스트에서 모두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수치’ 와 ‘추상적 속성’ 의 경우에는 애초에 모든 학생들이 해석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 비교 자체에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장소’ 의 *about*의 경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동일한 결과물을 보여줘서 이 또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부사적 용법’에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학생 수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 차이가 1명에 불과해서 기존 학습 방식과 이미지 학습 방식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다만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학습은 두 집단 모두에게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두 가지 수업 기법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었다. 실험 직후,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면담 시간을 통해서 1등급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그들은 1차 시기에서 모르는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은 뒤, 그 부분에서 대해서 충실히 복습했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간 것이었다. 특히나 장소와 부사적 용법의 경우, 다른 예문을 더 챙겨봤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5명이었다. 두 번째로 통제 집단 안에서의 1등급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의미처럼 보이는 *about*의 쓰임새를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추상적인 무언가로 잘 만들어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공통된 이미지의 그림을 통해 피드백을 받은 실험집단과는 달리 통제 집단은 각 문장에 대한 해석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about*의 해석 문장 내에서 특정한 공통의 의미를 끌어내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about*의 ‘장소’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 have no money *about* me’, ‘He has some money *about* him’ 과 같은 문장은 1등급 집단 학생들에게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제공하였다. 2차 시기에서 결국 8명과 9명으로 성공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의 두 문장을 처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을 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어야 했다. 이 문장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질문을 시도했고, 학생들은 해석하는데 ‘*about*이 많은 이질감을 준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응답한 학생도 다수였다.

위 실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전치사의 이미지 학습법과 기존 전치사 학습법 둘 다 학습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영어 학습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최고치에 도달한 학생들에게는 전치사 수업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을 통한 수업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나 학습 효과에 큰 차이를 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표 9〉 1등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about 속성에 대한 정답률

피험자 번호	등급	조건	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S1_01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2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3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4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5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6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7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8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9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0	1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1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2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3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4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5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6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7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8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9	1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20	1	실험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5.3 2등급 집단 실험 결과

5.3.1 분석

총 20명의 2등급 집단 학생들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1등급 집단에 사용된 분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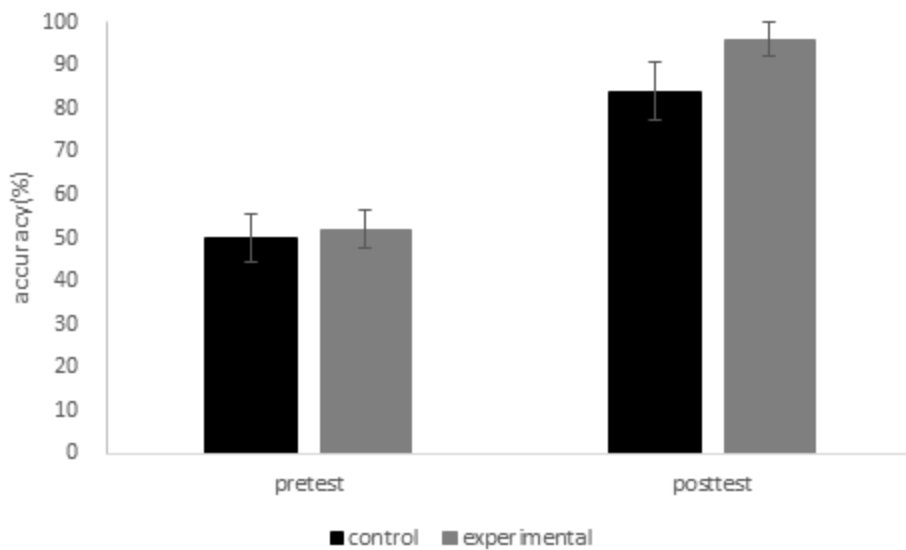
5.3.2 결과 및 논의

2등급 집단의 실험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집단 내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정답률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통제집단(전통적 문법학습을 수행한 집단)의 경우, 사전 정답률($M = 50$, $SD = 17.00$)이 사후 정답률($M = 84$, $SD = 20.66$)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t(9) = -4.636$, $p = .001$). 이런 효과는 실험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후정답률($M = 96$, $SD = 12.65$)이 사전 정답률($M = 52$, $SD = 13.9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9) = -8.820$, $p = .000$). 즉, 전통적 학습법과 이미지 학습법 모두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이끌어냈다.

둘째, 학습효과가 어떤 학습법에서 더 크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사전-사후 정답률을 비교하는 독립집단 T-검정을 시행하였다. 우선, 사전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 통제집단($M = 50$, $SD = 17.00$)과 실험집단($M = 52$, $SD = 13.98$)의 정답률은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t(18) = -.287$, $p = .777$). 이는 두 집단 간 실력의 차이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과는 사후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에도 관찰되었다. 즉, 통제집단($M = 84$, $SD = 20.66$)과 실험 집단($M = 96$, $SD = 12.65$)의 정답률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t(18) = -1.567$, $p = .135$). 이 결과는 2등급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이미지 학습법이 추가의 학습효과를 이끌어 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표 10> 2등급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정답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조건		N	평균	표준편차
사전_정답률	통제집단	10	50	17.00
	실험집단	10	52	13.98
사후_정답률	통제집단	10	84	20.66
	실험집단	10	96	12.65



<그림 17> 2등급 집단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정답률

아래 <표 11>를 참고하여 위 실험 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기에 *about*이 가지는 ‘장소’의 속성은 1등급 집단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가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시기 통제집단 2명, 실험집단 1명의 제외하고는 *about*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1등급 집단의 학생들과 같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about*에 관한 명확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는 통제집단 9명, 실험집단 10명으로 정답을 맞힌 학생의 수가 증가하였다. ‘수치’와 ‘추상적 속성’의 경우도 1등급 집단과 같

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 모두에서 학생 전원이 정답을 맞혔다. ‘행동 및 과정’의 경우 1차 시기에 통제집단은 3명의 학생이 올바른 응답을 했고, 실험집단에서는 5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2차 시기에는 통제집단은 8명, 실험집단은 9명으로 그 수가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에서의 정답자 수를 살펴보면, 1차 시기에 두 집단 모두 0명의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고 나서 2차 시기에서는 1등급 집단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2차 시기 통제집단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정답을 맞혔지만, 실험집단의 경우 9명의 학생이 정답을 이끌어냈다. 이 결과 값을 바탕으로 본다면, 2등급 집단 학생들에게 *about*의 이미지 학습법이 ‘부사적 용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식 보다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5가지 속성에 관한 1차와 2차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2등급 학생들이 1등급 학생들과 비슷하게 *about*이 가지는 ‘수치’와 ‘추상적 속성’의 의미만을 가지고서 해석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행동 및 과정’의 경우엔 1등급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부사적 용법’의 경우엔 그 이해 상황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4.2.1 질문유형 ① ‘*about*의 품사를 말하십시오’에서 부사라고 응답한 2등급 학생은 2명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문장 해석 시, *about*의 부사적 용법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서 ‘부사’라고 응답을 한 2명의 학생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적인 문장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사적 용법’에서 응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알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일단 2등급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 *about* 이후에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부사적 용법’에 사용된 예문들이 대체적으로 짧았으며, *about* 이후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서 해석 시에 활용할 단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1차 시기에 들었던 피드백의 내용이 2차 시기에 마주친 문장에서 적용되는지에 망설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about*이 가지고 있는 ‘부사적 용법’의 의미 자체가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미지 학습을 한 실험집단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보이지 않고,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

냈다. 그들은 이미지 그 자체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를 문장에 자연스럽게 적 용시켜 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bout*의 ‘부사적 용법’에 있어서 1등급 집단 과 2등급 집단의 또 다른 차이가 있었다. 1등급 통제집단 학생들과는 다르게 2등 급 통제 집단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전치사 의미를 기억하는 데 더 많은 집중을 하였다. 그리고 2등급 통제 집단 학생들은 1등급 통제집단 학생들과 같이 *about* 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 속에서 공통성을 가진 표현을 이끌어 내는 개념발전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about*이 부사로 쓰였을 때, 2등급 통제집단의 학생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셋째, *about*의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 have no money *about* me’, ‘He has some money *about* him’ 과 같은 문장은 1등급 집단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2등급 학생들에게 해석 시 어려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실험집단의 2등급 학생들의 경우, 1등급 실험집단이 9명인 것에 반해 10명 전원이 올바른 응답을 하였다. 물론 단 1명의 차이로서 지금의 결과에선 큰 의미를 찾긴 어렵다.

2등급집단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 등급 집단의 실험결과에서처럼 전치사의 이미지 학습법과 기존 전치사 학습법 둘 다 학습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두 학습법의 사이의 차이는 살펴볼 만한 점이 있다. *about*이 가지는 속성 네 가지(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에서는 두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부사적 용 법’에서는 이미지 학습법이 기존 전치사 학습법에 비해 상당한 효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고등학교 영어 학습 수준에서 1등급을 제외하고 2등급부터는 전치사의 이미지 수업이 *about*의 ‘부사적 용법’에 있어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데 분 명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표 11> 2등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about 속성에 대한 정답률

피험자 번호	등급	조건	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S1_01	2	통제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2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3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4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5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6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07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8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9	2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10	2	통제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1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2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3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4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5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6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7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8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19	2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20	2	실험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5.4 3등급 집단 실험 결과

5.4.1 분석

총 20명의 3등급 집단 학생들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1등급 집단에 사용된 분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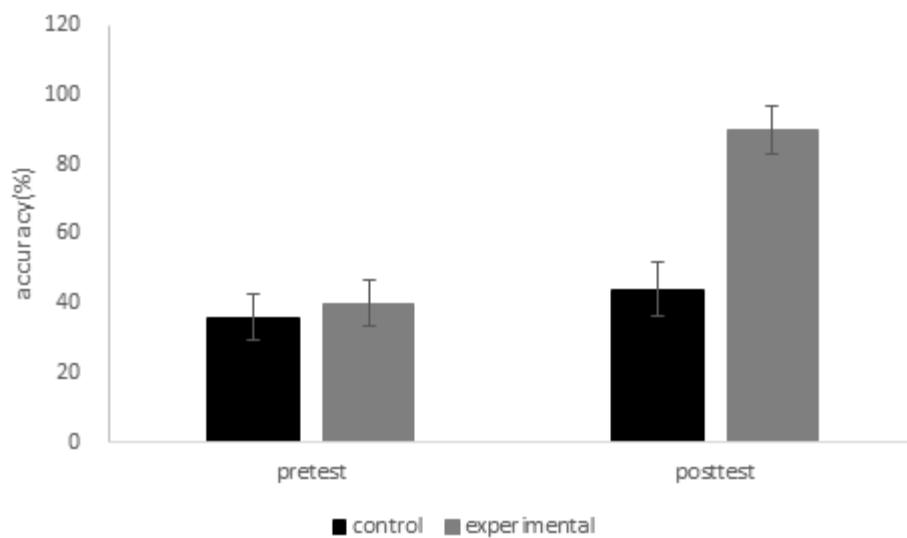
5.4.2 결과 및 논의

3등급 집단의 실험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집단 내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정답률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통제집단(전통적 문법학습을 수행한 집단)의 경우, 사전 정답률($M = 36$, $SD = 20.66$)이고, 사후 정답률($M = 44$, $SD = 24.60$)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9) = -1.500$, $p = .160$). 그러나 실험집단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후 정답률($M = 90$, $SD = 21.60$)이 사전 정답률($M = 40$, $SD = 21.08$)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9) = -6.228$, $p = .000$). 즉, 3등급 집단에서는 이미지 학습법에서만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학습효과가 어떤 학습법에서 더 크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사전-사후 정답률을 비교하는 독립집단 T-검정을 시행하였다. 우선, 사전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 통제집단($M = 36$, $SD = 20.66$)과 실험집단($M = 40$, $SD = 21.08$)의 정답률은 서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t(18) = -.429$, $p = .673$). 이는 두 집단 간 실력의 차이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뜻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사후 정답률을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 즉, 통제집단($M = 44$, $SD = 24.60$)과 실험집단($M = 90$, $SD = 21.60$)의 정답률은 통계적으로 달랐다($t(18) = -4.445$, $p = .000$). 이 결과는 3등급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이미지 학습법이 추가적인 학습 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을 뜻한다.

〈표 12〉 3등급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정답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조건		N	평균	표준편차
사전_정답률	통제집단	10	36	20.66
	실험집단	10	40	21.08
사후_정답률	통제집단	10	44	24.60
	실험집단	10	90	21.60



〈그림 18〉 3등급 집단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정답률

아래 〈표 13〉를 참고하여 위 실험 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기에 *about*이 가지는 ‘장소’의 속성은 앞선 두 집단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가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시기 통제집단 0명, 실험집단 1명의 제외하고는 *about*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1등급, 2등급 집단의 학생들과 같이 3등급 내의 거의 모두가 *about*에 관한 명확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다. 2차 시기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발생했다. 통제집단의 경우 단 1명만이 응답을 했지만, 실험집단은 8명이 응답하였다.

정답을 맞힌 학생의 수가 두 집단 사이에 크게 벌어졌다. 이를 통해서 3등급 집단에서 이미지 학습법의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의 경우 앞선 실험의 두 집단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차 시기에 통제집단은 5명, 실험집단은 6명으로 그 응답자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2차 시기에는 각각 7명, 10명으로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실험집단에 비해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미지 학습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추상적 속성’에서는 두 집단 모두 앞선 실험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차 시기 통제집단 9명, 실험집단은 8명이 정답을 맞혔다. 2차 시기엔 각각 9명, 10명으로 나타났다. ‘행동 및 과정’의 경우 1차 시기에 통제집단은 4명의 학생이 올바른 응답을 했고, 실험집단에서는 5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2차 시기에는 통제집단은 3명으로 그 수가 1명이 감소하였다. 응답하지 못한 학생은 1차 시기에 정답을 말했던 학생이었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학생의 경우, 1차 시기에 받았던 피드백 내용으로 인해 외워야 할 것이 많아졌고, 그 내용을 적용하는 여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대답하였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의미의 피드백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반면에 실험집단은 9명으로 그 수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숫자의 큰 증가를 통해서 우리는 *about*의 이미지 학습법이 기존 전치사 학습법과 비교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적 용법’에서의 정답자 수를 살펴보면, 1차 시기에 두 집단 모두 0명의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피드백을 받고 나서 2차 시기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2차 시기 통제집단의 경우 겨우 2명이 정답을 맞혔지만, 실험집단의 경우 8명의 학생이 정답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과 값을 바탕으로 본다면, 3등급 집단 학생들에게 *about*의 이미지 학습법이 ‘부사적 용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식보다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5가지 속성에 관한 1차와 2차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3등급 학생들에게 *about*의 이미지 학습법이 학습에 큰 향상을 보인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둘째, 2등급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3등급 참가 학생들 또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대개 학생들이 면담에서 응답한 내용과 실제 문장의 해석 결과물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면담

에서 응답한 것과는 다르게 1차 시기 ‘부사적 용법’은 해석할 수 있는 학생이 없었고, ‘추상적 속성’에 해당하는 의미 해석도 10명 전원이 하지 못한 채 각각 9명, 8명이 올바른 응답을 하였다. 2등급 학생들의 경우처럼 이론적 내용을 실제 문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3등급 집단의 학생들은 *about*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상당히 낮았다.

셋째, 3등급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3등급 통제집단 학생들은 2등급 통제집단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about*이 갖는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를 따로 외우는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암기한 내용이 2차 테스트 시기에서 생각이 나질 않아서 답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1차 시기에 익혔던 *about*의 한글 의미에 대한 집착이 커서 2차 시기에서 해석할 때, 그 의미를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해석이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느끼게 될 경우, 문장 해석에 대한 시도를 중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암기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중지하는 것이었다. ‘부사적 용법’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컸다. 일단 *about*이 부사로 쓰일 경우, 그 뒤로 목적어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문 문장만을 가지고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통제 집단 학생들에게는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험집단이 1차 시기에 받았던 피드백에서 *about*의 그림 모습을 쉽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응용하여 *about*관련 예문을 자유롭게 해석해내는 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문법과 품사에 집착하던 통제 집단과는 달리 실험 집단은 문장 해석 시에 문법과 품사에 대한 미련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3등급 집단의 실험에서 *about*의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I have no money *about* me’, ‘He has some money *about* him’과 같은 문장은 이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제공하였다. 실험 집단 학생들은 대부분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응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위의 두 문장에서 다 실패하였다. 정리하자면, 총 세 등급의 학생들에 걸쳐서 ‘I have no money *about* me’, ‘He has some money *about* him’이 두 문장은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 문장이 유독 한국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등급 집단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앞선 두 집단과 3등급 집단은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일단 전치사 *about*을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업할 경우, 1등급과 2등급 집단과는 달리 3등급 집단에서는 그 수업의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about*의 이미지 학습법에서는 그 학습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 이 두 학습법을 비교했을 때, 3등급 집단에서는 눈에 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3등급 학생들에게는 이미지 학습법이 분명한 효과를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두 학습법 사이의 차이는 살펴볼만한 점이 있다. *about*이 가지는 속성 두 가지(수치, 추상적 속성)에서는 두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속성(장소,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에서는 이미지 학습법이 기존 전치사 학습법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여준다. *about*의 이미지 학습법은 3등급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 변이형과 확장형의 해석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던 김지희(2014)와 송효진(2008)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 즉,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해 이미지를 활용한 전치사 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3등급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about 속성에 대한 정답률

피험자 번호	등급	조건	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S1_01	3	통제	사전	0	사전	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02	3	통제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0	사후	0	사후	0	사후	0
S1_03	3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04	3	통제	사전	0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5	3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20
S1_06	3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S1_07	3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08	3	통제	사전	0	사전	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09	3	통제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10	3	통제	사전	0	사전	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11	3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2	3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3	3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4	3	실험	사전	20	사전	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5	3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사후	0
S1_16	3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7	3	실험	사전	0	사전	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8	3	실험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19	3	실험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S1_20	3	실험	사전	0	사전	0	사전	20	사전	20	사전	0
			사후	0	사후	20	사후	20	사후	20	사후	0

VI.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본 논문은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치사의 이미지 교수법이 가질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특히 ‘*about*’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 번에 다양한 전치사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였지만, 본 연구는 전치사 *about*만을 가지고서 실시하였다. 기존에 학교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전치사 수업 방식과 이미지를 활용한 수업 방식에서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총 60명 이었다. 1등급, 2등급, 3등급 3개의 집단이 있었고, 각 집단을 다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2차 분류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전치사 *about*의 다양한 의미 전부를 구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실험집단의 경우, *about*이 가지는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서 설명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전치사 *about*이 가지는 속성(장소, 수치, 추상적 속성,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표현 모두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bout*이 가지는 원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해석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확인되는 정도가 집단마다 달랐다. 1등급에 해당하는 상급 학생들의 경우, 이미지 학습을 이용한 전치사 수업이든, 학교에서 하는 방식인 문맥에 해당하는 다양한 뜻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이든 학습효과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이해도와 응용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집단이라 어떤 방식의 수업 속에서도 모든 내용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다. 2등급에 해당하는 집단의 결과도 위와 유사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 실험집단의 경우,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부사적 용법의 사용영역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즉, 이미지 활용 수업의 결과가 조금 더

우월한 결과를 나타냈다. 3등급 집단의 연구 결과는 앞선 두 집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다. 3등급 집단에서는 모든 집단이 잘 해결하는 2가지 속성(수치, 추상적 속성)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장소, 행동 및 과정, 부사적 용법)에서 이미지 수업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학습 효과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3등급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부터는 전치사 이미지 교육이 확실한 습득 능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요약하자면, 전치사 *about*을 도식과 이미지를 통해 학습할 경우 학습 효과는 모든 집단 내에서 발생하였다. 다만 1등급에서는 기존 학습법과의 비교해서 그 우월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2등급에서는 부사적 용법의 부분에서 유의미한 학습 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등급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습 향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치사의 이미지 학습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6.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내 영어 수업에서 전치사를 이미지 수업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이 학습방법은 2~3등급에 해당하는 중상급자와 그 이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앞선 3개의 집단을 통한 실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bout*과 같은 전치사는 개별적인 의미가 따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맥 속에서 그에 맞는 변이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은 효율적인 전치사 학습을 위해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미지 학습의 결과는 모든 실험 집단 내에서 균일한 학습의 상승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원형적 이미지 학습방법이 분명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전치사 *about*이 다양한 변이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기존의 방식으로 *about*을 학습을 했던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의미의 확장성을 이해하는 데 큰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개별적인 전치사 *about*의 의미를 다 알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품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 결과, 다양한 위치에서 등장하는 *about*의 의미를 끌어내는 것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학습자들은 *about*이 다양한 문맥 속에서 등장할 때, 어떤 의미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보여주었다.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이 *about*을 해석할 때 적절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엔 곧바로 해석을 그만두고 문장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였다.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었다. 결국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커져서 학습에 대한 의욕만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 학습을 제안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험 이후, 이미지 학습을 한 학생들은 유사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전치사의 차이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around’와 ‘of’와 같은 전치사는 *about*과 한글 해석상에서 유사한 의미를 보여줄 때가 있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A boy looked *about* the hall’과 ‘A boy looked *around* the hall’ 문장을 해석 할 경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통제 집단의 학생들은 이 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about*이 들어간 문장을 비문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지 학습을 한 실험집단 속 학생들의 경우, 위의 두 문장의 뉘앙스 차이를 곧잘 이해해냈다. 해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를 작게나마 구분하는 것이었다.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조금 더 영어의 의미를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교육 과정 내에서의 전치사 이미지 학습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전치사 이미지에 대한 작업을 제안한다. 영어 전치사의 의미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전치사 학습은 수많은 개별적인 의미의 암기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치사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치사를 범주별로 분류한다면 크게 5가지(위치, 접촉·분리, 힘, 움직임, 비교)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하위 범주적 의미가 덧붙여진다. 이것을 한국어 해석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끝없이 보이는 암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치사의 원형적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치사에 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최재봉(2011)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내용물이 시중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각 전치사의 다양한 예문에 그림 설명이 붙을 수 있다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치사가 가지는 원형적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논의할 한계점과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다. 본고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실험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실험은 3등급에 해당하는 학습자 내에서 분명한 실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 밑에 해당하는 더 많은 집단의 학습자들이 있고, 위 실험의 연구 결과가 하위 집단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면, 이미지 학습이 가지는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의 국내 영어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직 단한번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난 뒤에 2차 실험을 진행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1 면담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about*에 대해서 한 번의 설명만을 가지고서 한 달 뒤에 기억을 해내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또한 1,2등급을 제외하고 3등급부터는 학습에 대한 습득이 비교적 느릴 수 있다. 그들에게는 습득을 위한 추가적인 수업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피드백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받았다면 기존의 학습 방식과 이미지 수업 방식에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제공된 예문의 수가 문제일 수도 있다. 1차 문장 테스트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문장은 *about*이 가지는 5개의 유형별로 각 2개씩 총 10개의 문장만이 제공되었다. 그 결과, *about*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학습을 위해선 많은 변이형에 대한 노출과 그에 대한 경험 많아야 하는데, 제공된 예문은 그러한 범위를 다루기엔 부족했을 것이다. 만약에 예문 문장의 개수가 많았고, 충분한 예행연습이 더 이루어졌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넷째, 1,2등급 집단에서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다. 3등급 집단 내의 결과는 수치상의 차이가 분명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학습법이 가지는 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1등급과 2등급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두 집단은 수치상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실험집단이 상승효과를 보였지만, 그것은 통제집단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우리는 각 학습법 내에서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집단(통제집단, 실험집단)에서 발생한 학습의 효과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전치사 *about*을 이미지로 나타내기 어려운 추상적 문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예문은 이미지화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about*은 수많은 문장에서 등장한다. 만약 제시된 문장이 그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학생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추상성에 대한 이미지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표현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그 전달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의문점이 있다. *about*의 속성 중, ‘장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 일단 그 두 개의 문장은 ‘He has some money *about* him.’ 과 ‘I have no money *about* me.’ 이다. 이 두 문장의 경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유사하게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외의 문장에서는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1등급 집단에서도 앞선 두 문장에서는 해석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1등급 집단에 <표 9>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실험 결과의 2차 시기를 보면 수치로 보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소의 속성에서 뛰어난 해석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표 9>에는 보이지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 실험을 진행 할 당시 위 두 문장은 해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학생들이 해석에 있어서 많은 주저함을 보였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문장이 ‘너무 이상하다’ 라는 식의 응답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가지는 이해의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환. (2020) 『새로운 영문법 해설 3』, 한국문화사.
- 김민채. (2019) 「한국 고등학생의 공간 전치사 at, on, in 사용에 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희. (2014) 「영어 전치사를 대상으로 전통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의 학습효과 비교」,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승홍. (2014) 「인지문법을 토대로 한 영어 전치사 of와 about에 대한 의미연구」, 『인문 사회과학연구』 15(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남윤이. (2014) 『Grammar Master 119』, (주)꿈을담는들.
- 레이 밀스, 심재경. (2006). 『영어식 사고로 유창하게 말하는 비밀은 전치사에 있다』, 넥서스.
- 류용달. (1988) 「영어 다의어 일반의미의 타당성과 필요성」 『언어와 언어교육』 3,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 박상준. (2014) 『해석이론 수능편 1』, 잉글리시 비주얼.
_____, (2011) 『해석이론 수능편 2』, 잉글리시 비주얼.
- 박일호. (1992) 「공간 전치사 About, Of의 의미 연구」,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 세키 마사오. (2019). 『전치사 덕분에 영어 공부가 쉬워졌습니다』, 키움 출판사.
- 송효진. (2008) 「기본의미 활용을 통한 영어 전치사 지도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정봉. (2011). 『그림만 봐도 어순이 잡힌다 영어가 된다』, 원타임즈.
- 양용준. (2021) 「EFL 환경 영어학습자들의 전치사 구조와 쓰임에 대한 이해정도」, 『언어 과학연구』 98, 언어과학연구.
- 유선영. (2015) 「번역을 위한 인지문법의 활용 : 영어 공간 전치사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동. (2015) 『영어 전치사 연구 -의미와 용법』, (주)교문사.
_____. (2019) 『영어 구동사 연구』, (주)교문사.
- 장수경. (2011). 『삼원소 전치사』, 삼원소 어학연구소.
- 정형정. (2013). 『전치사 쇼크』, 쇼크 잉글리쉬.
- 최재봉. (2008). 『애로우 잉글리시』, EYE(북&월드).
_____, (2011) 『애로우 잉글리시 전치사 바로잡기』, 21세기북스(북이십일).

- Aarts, Bas. (2011). *Oxford Modern English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nnet, D.C. (1975). *Spatial and Temporal Uses of English Preposition: An Essay in Stratificional Semantics*. London: Longman.
- Bolinger, D. (1990). *The Phrasal Verbs in English*.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 Brook, George Leslie. (1958).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1987).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Vol. 2.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gman.

부 록

TEST TYPE. 1

1.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They wandered about the town for an hour or so.
2.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He is about 70 years old.
3.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What's the best thing about the computer.
4.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The tea is about boiling.
5.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He came at about 9 : 30.
6.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The Covid-19 is about.
7.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He has some money about him.
8.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The divers slow down when they see children about.
9.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The airplane is about to leave.
10.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십시오.
- There is something suspicious about her.

각각의 지문에서 about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TEST TYPE. 2

1.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 tools lay about.
2.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What is your opinion about his work?
3.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y were about 5 feet long.
4.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I have no money about me.
5.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 building is about built.
6.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His father wants to know all about his girlfriend.
7.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Forty or sixty people gathered about the cafe.
8.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We went about 7 miles.
9.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im is somewhere about.
10.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 TV show is about to begin.

각각의 지문에서 about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TEST TYPE. 3

1.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 toys were scattered about the room.
2.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 breakfast is about cooked.
3.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re is nobody about.
4.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There were trees dotted about the field.
5.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He gave instructions about the business.
6.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I arrived there about six o' clock [midnight]
7.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He has left papers about.
8.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I was about to go to sleep.
9.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It costs about \$20.
10. 다음 문장을 읽고 해석하시오.
- Games are all about making money these day.

각각의 지문에서 about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ABSTRACT

A Study 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eposition Image Learning on Students – Focusing on the Preposition *about* –

Koh, Deok-Eu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Yang, Yong-Jo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Korean high-school students know about the preposition *about* and to explore effective method of learning the preposition, *about*. To do this, this paper presents preposition learning through images. It is intended to confirm the effect through a comparative experiment between the existing learning method and the learning method using images.

The study method is as follows. A total of 60 Korean high-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re were three groups which consisted of first-class, second-class, and third-class, and each group was again classified

into a control group and an experimental group. In the first period, both groups were required to read and interpret ten sentences containing *about*. After that, in the case of the control group, all of the various meanings of the preposition *about* were verbally explained, and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it was explained with an original image of *about*. Precisely a month after receiving that feedback, the two groups were required to read and interpret ten examples containing the preposition *about*, as in the first period. Both groups examined all expressions corresponding to the attributes of the preposition *about* (place, number, abstract attributes, behavior and process, adverbial use). The results of the study conducted based on this are as follows.

Education through the image of the preposition *about* was generally effective,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learning. In the case of the first-class group,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They showed excellent learning results regardless of the way they were taught. The second-class group showed slightly different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in the four attributes of *about* (place, number, abstract attributes, behavior, and process). However, in the case of adverbial use,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better learning effects than the control group. The third-class group showed completely different results. In all attributes of *abou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greater learning effect than the control group. Preposition learning through images positively affected students' acquisition of preposi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learners' preposition learning should be done through images. When learning the preposition *about*, image learning of the original *about* is more effective than memorizing an individual meaning.